



지오투어리즘 개관

지오투어리즘(GEO TOURISM)

◆ 의미

- 우수한 지형 · 지질자원이 나타나는 지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관광산업
- 1980년대부터 자연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온 유럽에서 시작
- 지형 · 지질관광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

지오투어리즘(GEO TOURISM)(2)

◆ 대상

- 대규모 토목공사나 오랜 기간 동안의 침식으로 인해 모습을 나타낸 노두·지층
- 화석이나 특이한 암석·광물, 이들의 풍화, 침식 등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지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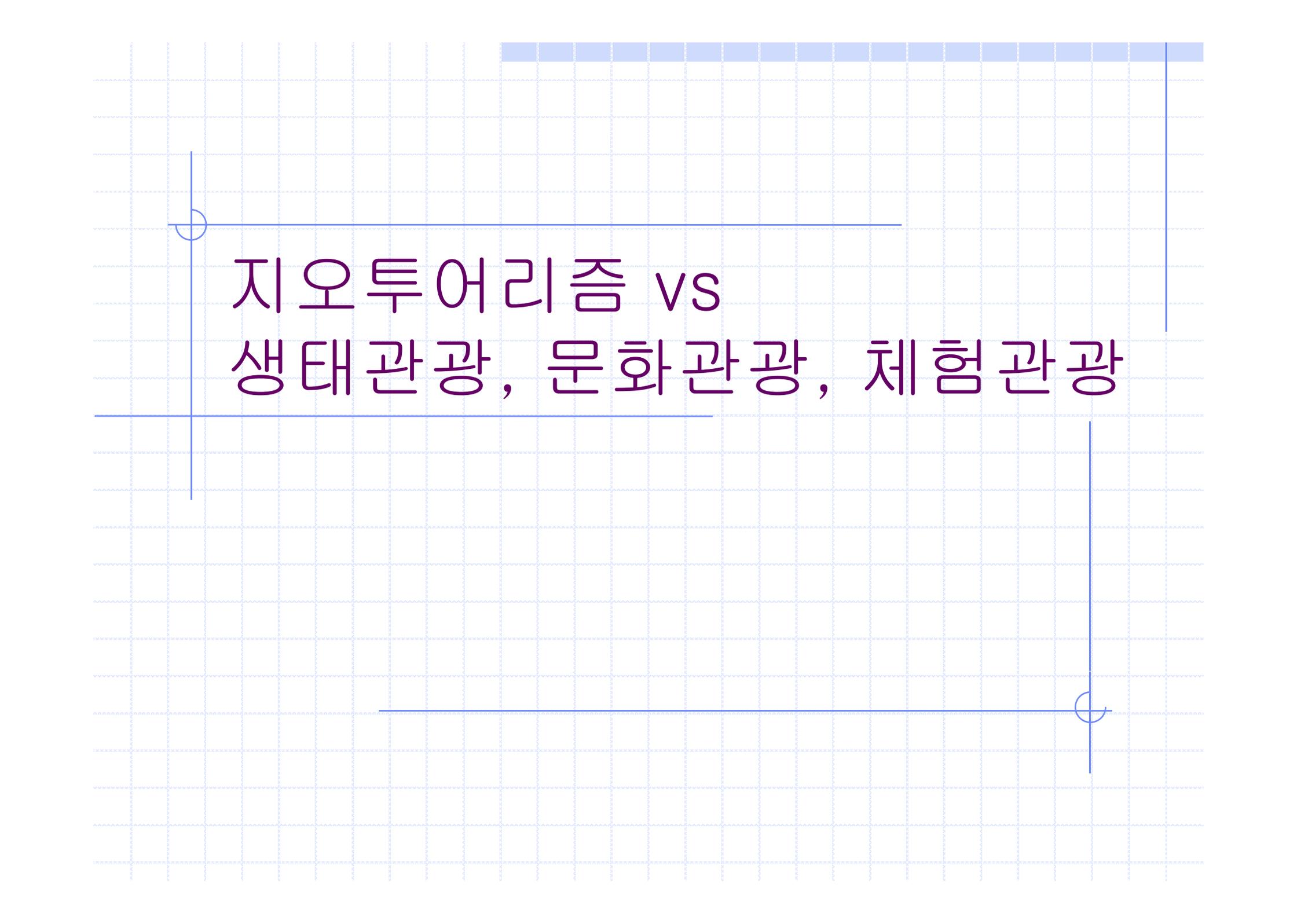
◆ 목적

- 지형과 지질 등에 대한 학습을 위한 안내 해설 체계와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여 지구과학적 지식과 대중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

지오투어리즘(GEO TOURISM)(3)

◆ 특징

- 일반 생태관광과는 달리 계절적 제약 없음
- 지형 및 지질에 대한 체계적 교육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
- 지금까지 두드러진 관광자원이 없어서 관광지가 될 수 없었던 지역에 새로운 관광대상 창출



지오투어리즘 vs
생태관광, 문화관광, 체험관광

vs 생태관광; 대상

◆ 생태관광

- 자연 그대로 보전된 지역에 한정

◆ 지오투어리즘

- 자연환경 + 도시적 환경까지 포함
- 채석장, 광산: 화석이 있는 지역의 바위나 돌 관찰 가능 → 대상에 포함
- 지리적 특성을 유지 + 다양한 여행 경험

vs 생태관광; 초점

◆ 생태관광

- 자연경관의 자연, 교육, 지속가능성
- ‘자연보호 지역을 방문하는’, ‘상대적으로 방해 받지 않은 지역에서 경험을 추구하는’ 관광

◆ 지오투어리즘

-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경관의 지속가능성
- 환경, 문화, 심미성, 유산, 주민 복지
- 농촌관광, 문화관광, 생태관광의 총체적 형태

◆ 생태관광

- 생물자원 중심
- 야생 동식물감상, 산책, 하이킹 등 소극적 활동
- 계절적 제약,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
- 지역 소득 및 고용 창출의 지속성 문제

◆ 지오투어리즘

- 비생물자원 중심, 적극적 체험활동의 기반 제공
- 지역 관광자원의 역사적인 구조, 전통문화, 경관, 음식과 예술, 그리고 식생 등 → ‘장소성’과 ‘지역성’을 통합

VS 문화관광

- ◆ 지역의 문화와 역사 ← 지형·지질 자원을 기반으로 형성 ⇒ 방문지의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 ⇒ 문화관광과의 높은 관련성 유지
- ◆ 체험관광과 지오투어리즘은 특별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음